

서론	제목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를 귀로 기듯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은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후손이 살아갈 수 없는 터전이다.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 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기억해야 한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5)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5)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을 보호하면 여러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태국 정부 에 따르면 2011년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지역에서 심각한
	5)	홍수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400 달러 이상에 달했는데, 태국 정부가 맹그로브 숲 복원 정책을 추진한 이후 홍수 피해가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동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숲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입자와 주거지역 화재로 생기는 오염물질 대규모로 뒤쫓을 때 산불지역 주민들은 4월 중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겪으면서 피해도.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처럼 자연이 파괴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하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만 한다.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이 파괴되면 동물의 서식지도 파괴된다.
	4)	한 전문위원의 글에 따르면 서식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 파괴는 생물들의 적절한 서식지를 잃게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5)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 개발을 하지 말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 2) ✕ 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생태계의 균형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다 양성 생물과 미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어서 부정적 영향을 줄입니다.
본론	근거 1 4) ✕ 5) ✕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4) ✕ 5) ✕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4) ✕ 5) ✕	셋째, 산을 깎아내고 도로를 건설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식생이 사라지고 비엔즈 해안선은 파손에 따른 생태계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조국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인제대 이준호 교수는 특히, 토양 유실, 수질 오염, 산사태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인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input type="radio"/>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표현은 없었는가?	<input type="radio"/>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표현은 없었는가?	<input type="radio"/>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 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5)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홍수, 산사태,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4)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숲과 습지는 빙산을 저장하고 천천히
	5)	방출하여 홍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백리를 통해 토양을 단단히 고정하여
		산사태를 예방한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논설문 작성 연습

반 0/번

이름 박지호

서론	제목	(자연 자원 보호하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은 점점 훼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4)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은 미래세대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4)		
5)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하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3)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향유보다 밀접한
	4)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환경은 관광, 산업을
	5)	촉진시키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됩니다. 다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약 10%가 산업에서 향유되며, 그중 생태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p>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p> <p>한겨레 장수경 기자 수정 2025-03-27 17:30 등록 2025-03-26 18:18</p> <p>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p> <p>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p>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환경 보호를 해야된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단한 토지가 오염되어 농사가 힘들어 식량이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부족할 수 있다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네이버 블로그
결론	근거 3	셋째, 자연이 계속 파괴되면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오빠, 땅이 오염되면 농사가 힘들어 곡식을 수확하기 어렵다. 에 따르면 계속 이대로 가면 채소,곡식등이 부족하여 가격이 인상되어 구매가 힘들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이 계속 파괴되면 농업에 큰 피해를 입어 채소,곡물 등을 먹기 힘들 것이다.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이처럼 계속 파괴되면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이론 제기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은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u>자연을 보호하자</u>)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3)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결론	근거 3	셋째, 자연이 파괴된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하지 못하고 더 심해
	4)	질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의 약 20~25%가 파괴되면
	5)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고,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으로 변할 위험이 커진다.
주장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모두가 자연을 소중히 여길 때, 건강한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하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4)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5)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 보호를 함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이땅은 우리만 살아갈 곳이 아니라 동물도 살고 식물도 있다. 에 따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라든 기사
	5)	두도 없어 나온다 이처럼 환경 파괴는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우리 모두한테 피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해를 끼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보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1)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홍수, 산사태,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에 따르면
	4)	2019 태국 뉴스(중)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태국 정부는 해안 지역의 맹그로브
	5)	숲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홍수 피해가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 개발로 사라져 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 많이 살아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하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4)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 코핀뉴스에 따르면 건강한 생태계는 농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 곤충과 새끼를 순환을 지원한다. 또한, 방목역 인해 여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산호초 파괴와 해양 오염으로 어류 서식지가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Handwritten signature)

서론	제목	(자연 개발을 하지 말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그래서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이 파괴됨에 따라 동물들이 죽어나간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제강정기의 자연 개발 때문에 시베리아 호랑이는 남한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자연 파괴 때문에 동물들이 고동받고 있다.
	4)	
	5)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그래서 자연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아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단정하는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오도한 표현은 없었는가?	

논설문 작성 연습

반 18번 이름 이경의

서론	제목	(자연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은 안기처럼 인간한테 자연 재해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4)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산사태가 일어 내면
5)		폭우가 많이 내리옵니다. 하지만 나무의 정력한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계속 자원이 고갈 된다면 미래의 사람들은 먹
	4)	을 것이 없어 힘들게 살 것이다. 식량 농업 기구 (FAO)는 전 세계 어류 자원에 약 34.2%가
	5)	지속 개발한 수준으로 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개발의 위험성)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뉴스
	4)	에 따르면 자연개발을 하면 개발로 인해 대기와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해 산업시설, 도로, 건물이 증가하면서 토지 파괴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흙먼지 등이 대기 중에 발생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을 순도하자)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4)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생태계(자연)이 파괴되면 자연재해가 증대합니다.
	4)	매일 1분지식(2주)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는 도시 안정성의 감소, 홍수 및 가뭄의 발생, 산불 폭산, 해안 침식과
	5)	침식 등의 이유로 인해 자연재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이 파괴된 인간됨)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도대체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이 파괴되면 여러 재난이 발생한다. 네이시 리식스에 따르면 자연이 파괴되면 나무
	4)	뿌리가 흔들리며 점점 쓰러진다. 동수동 재난이
	5)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 보호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2)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우리는 엄청난 과학기술로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뭍고기게 갈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면 다음세대에 치명적
	4)	입니다. 과학에 따르면 자연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5)	우리 후손들은 마땅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구를 개발한 삶을 위해선 지구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i>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i>)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1)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 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i>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i>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i>자연을 보호해야 한다.</i>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갑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 기를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5)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i>자연재해 예방</i>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홍수, 산사태, 가뭄
	4)	<i>등과 같은 재해를 예방한다. 자연에 따르면</i> <i>토양 침식은 빙하를 저장하고</i>
	5)	<i>천천히 방출하여 홍수를 완화할 역할을 하며</i> <i>산사태를 예방한다</i>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i>자연재해로 (산사태) 등 산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i>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상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맑고기게 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개발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면 나무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와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를 계속하는 원인이 된다. 자연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을 보호하고 기어 올려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서론	제목	(자연은 보호해야 한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2)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본론	근거 1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이광연 교수(한서대)에 따르면
	4)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의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5)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근거 2	둘째,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4)	자연이 파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이 파괴되면
	5)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근거 3	셋째, 자연의 파괴가 생태계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u>에 따르면</u>
	4)	그 이유는 자연에서 떨어진 공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
결론	주장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연은 보호해야 한다

산불 사망 24명·부상 26명…역대 세번째 피해 규모

한겨레 | 장수경 기자 | 수정 2025-03-27 17:30 | 등록 2025-03-26 18:18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12시54분 의성군 야산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박아무개씨도 포함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내용의 타당성	주장이 가치있는가?		표현의 적절성	표현은 없었는가?	
	주장과 근거와 관련있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 하는가?			표현은 없었는가?	